

社會의 病的 現象 (四)

獨逸에서

哲學博士 李灌鎔(寄)

社會는 精神體다 (續)

此世에 『絶對的 父』가 無한 것 갓치 『絶對的 君主』도 無합니다. 父는 子에 對하는 關係 君主는 臣民에 對하는 關係 內에서 父요 君主라 하겠습니다. 父의 子에 對하는 關係는 父가 子에 對하는 作用을 因하여 君主의 臣民에 對하는 關係는 君主가 臣民에 對하는 作用을 因하여 成立되얏습니다. 그러면 關係나 作用이나 同意義로 用할 수 잇습니다. 그런데 父라 子라 君이라 民이라 하는 肉體는 本來부터 相等하나, 其社會的 作用範圍 內에서는 相異합니다.

然則 肉體는 物質이오, 此肉體의 互相關係는 作用이라 하겠습니다. 作用과 物質이 相異함은 木鐵石의 單純集合體와 一家屋과 갓흐며, 數萬의 細胞를 單純히 集合한 것과 心靈作用을 有한 우리 身體가 相異한 것 갓흐며, 街路上에 無從屬法則으로 集合한 數萬人은 單純한 物質이며, 다만 三四人이라도 父母妻子의 關係로 生活하는 家庭은 作用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대 作用과 物質은 相離치 못할 眞相입니다. 物質이 有한 然後에 存在法則인 作用이 有하겡고, 存在法則인 作用이 有한 然後에 物質의 存在가 可能하겡습니다. 人類가 有한 然後에 社會가 有하겡고, 社會가 有한 然後에 人類的 生存이 可能하겡습니다. 全體와 部分이 相對的 觀念임으로 우리가 其相離한 狀態를 想像키 不可能한 것 갓치 物質과 作用도 不可相離할 相對的 眞相입니다. 그런대 全體라 함은 그 部分인 各 構成 個物의 互相關係의 作用으로 成立되는 것인즉 그 全體의 性質은 作用이라 하겠습니다. 數個 人體는 部分이오, 家庭은 此等 人體의 父母妻子인 總括的 作用 卽 全體라 하겠습니다. 然則 部分은 全體에 對하는 物質이오, 全體는 部分에 對하는 作用이라 하겡습니다.

그런데 作用도 一眞相입니다

作用은 人體인 物質과 相異한 父的, 母的, 子的, 妻的의 總括關係인 眞相입니다. 그런데 物質이 아닌 眞相을 우리 人類界에서 心靈이라 하고 此所謂 心靈의 作用을 精神이라 稱합니다. 그러면 各 構成物의 一定한 互相關係로 一組織體를 形成하면 一精神體를 生함은 事實로 認定치 안이치 못하겠습니 다. 然則 極端 唯物論者가 觀하는 純全한 肉體만 有한 人이라도 그 內的 互相關係를 因하여 一次 社會라는 全體를 構成하면 社會 自體는 精神이라 하 겠습니다. 老子的 言을 빌어서 社會主要體의 性質을 定限하면 『神器』라는 二字가 適當하겠습니 다.

社會生活은 精神的 生活이다

古代에 聖人이 敎訓하기를 人은 肉體와 心靈으로 成立되얏다 한 것을 近世 學者中 此心靈은 肉體의 作用이라 하여 人을 一物塊로 觀하는 者 有하나 社會라는 精神體 範圍 內에서는 精神的 人格을 有함이 事實입니다. 原始的 野蠻人도 物質的 生活 外에 精神的 生活을 有함은 人類學上 事實입니다. 文明한 人일사록 此精神的 生活이 發展되야 豊富하게 됨은 그 社會生活이 複雜하게 된 까닭입니다. 만일 社會가 人과 人의 固有한 原性에서 外發되는 互相從屬的 關係로 成立된 것이면, 만일 此關係의 生活을 一定한 自然法則 卽 生物의 發展法則에 依하여 總括的으로 組織한 것이 社會라는 精神體이면, 만 일 此精神體의 發展法則에 依하여 動作함이 社會的 生活이라 하면 社會의 生活은 卽 精神的 生活이라 하겠습니 다. 그런즉 우리가 社會生活을 하는 同時에 우리의 精神的 人格이 動作되겠습니 다. 吾人의 精神的 人格의 動作이 社會生活의 主要 現象입니다. 社會 自體를 一不動物로 觀함은 決코 不可할 듯합니다.

『社會』라는 名詞의 『會』字가 包含한 動作을 主要視하고 此를 動詞的 名詞로 用함이 眞相에 近하겠습니 다.

人類는 社會生活을 免치 못하겠다

以上 所謂 互相從屬的 關係라 함은 發展의 主要 現象이오, 發展이라 함은 單純狀態가 花와 如히 發하여 複雜狀態로 化함을 云함입니다. 單의 細胞로 成立되얏든 原始生物體가 分殖되야 多數하게 되고, 또 各 細胞가 分化하여 內中外 細胞層으로 되는 것 갓치, 狩獵에 從事하든 夫와 嬰兒를 養育하든 妻의 原始時代의 互相從屬的 關係도 此 發展法則에 依하여 現代 社會生活과 갓치 複雜하게 되얏습니 다. 分業의 進歩와 專門家 數의 增加를 因하여 個

人的 活動範圍는 狹小하게 되고 社會生活은 漸次 豊富하게 되얏습니다. 現代 社會는 各 專門家라는 細胞로 成立된 一大 怪物이 되야 各 個人의 絶對的 服從을 命令합니다. 同時에 社會的 生活은 人類의 免치 못할 運命이 되얏습니다.

우리 人類는 眞正한 個人的 生活이 不可能합니다. 우리 原性이 社會的인 大 社會에서 生長하야 우리 生活을 永久히 社會化하얏습니다. 一動一靜에 그 原因되는 動機도 社會的이오, 그 結果되는 動作도 社會的입니다. 그쥔 안이 라 社會는 人的 要素인 人格의 製造所입니다.